

'90년대

메이저 동향과 전망

1. 머리말

국제석유산업은 19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하기 까지만해도 메이저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수익이 감소하자 메이저들은 ① 사업의 다각화 ② 사업구조의 재편(Restructuring) ③ 대형 M & A (사업의 합병 및 매수, 셰브론사의 걸프사 매수등)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이외의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메이저들이 다시 본업에 복귀하여 원유생산, 수송, 정제, 판매, 및 석유화학부문을 포함한 일관화의 과정중에서 수익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생산과 같은 상류부문에서는 과거처럼 산유국에서의 대폭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유가상승에 기대를 걸 것이다. 또 메이저들은 정유 공장의 신설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며 세계적인 자유화 경향과 대기보전 강화에 따라 탈황시설 및 중질유분해시설등 2차설비를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2. 메이저의 경영실적 동향

메이저중 BP 및 텍사코는 원유, 모빌 및 셰브론은 가스가 주종이고, 사업재구조측면에서 로얄더치 셸 및 엑슨은 균형을 잘 이루는 등 수익향상에 여러가지 대응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최근의 실적을 보면 원유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하류부문에서 채산악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4분기중 18개 석유회사의 총수익은 37 억 5,200 만달러로, 전년동기의 37 억 5,300 만달러와 거의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엑슨은 지난해 3/4분기중 총이익이 10 억 8,000 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다.

모빌은 총이익이 3 억 7,900 만달러로 29% 감소하였다.

텍사코는 총이익이 3 억 8,000만달러로 25% 증가했으면, 미국 셸은 지난해 3/4분기중 매출액 62 억 달러(전년동기비 15% 증가) 순이익 2억3,000만달러 (33% 감소)를 기록했다.

그동안 하류부문의 사업은 지난 수년간 개선되어 왔다. 석유회사들은 하류부문이 단독사업

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또한 유망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지난 1986년의 유가하락 때만해도 하류부문으로부터 대폭적인 수익을 얻는 일은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하류부문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속 실시하였다. 다만, 투자배분의 초점을 정제부문에서 판매부문으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시설고도화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합리화, 코스트경감 등의 과제는 판매부문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메이저는 어느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다른 지역의 판매자산을 취득하는 일도 하고있다.

세계적인 정제시설 과잉으로, 비효율적인 정제설비는 폐쇄하고 판매망도 축소 또는 효율적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브론과 아모코가 유럽시장으로부터 철수한 것처럼 다수기업이 해외의 특정지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그 결과, 해외하류부문의 활동지역은 축소되고 로알더치셀과 엑스의 정제 및 판매업의 지배적 지위가 향상하였다. BP는 이들 두기업에 이어 2 위였으나, 유럽에서의 조업을 경쟁가능 상태로 바꾸고 또한 칼텍스가 우세한 극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빌과 텍사코도 국제적인 정제 및 판매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철수하고 있다. 남겨진 하류부문자산은 특히 세계각지에서 이들 자산구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로알더치셀에 의해 매입되고 있다.

유럽 메이저의 대표적인 BP는 걸프사태 발생 직후 「북해원유의 가격안정」을 내세우고 증산에 착수하였다. 또한 BP는 북해유전과 미국메이저와의 합병에 의한 알라스카유전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동 걸프만에 대한 의존도를 한층 감소시키기 위해 소련의 석유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1〉 메이저의 자유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8)

	원유공급량 1 *		원유정제량		제품판매량	
	1,000 b/d	對자유세계(%)	1,000 b/d	對자유세계(%)	1,000 b/d	對자유세계(%)
엑슨	1,919	4.2	3,042	7.4	4,306	8.7
모빌	1,389	3.0	1,646	3.8	2,525	5.1
세브론	1,309	2.8	1,907	4.4	2,410	4.8
텍사코	990	2.1	1,877	4.3	2,787	5.6
아모코	809	1.7	944	2.1	1,120	2.2
미국 5사 합계	6,416	13.8	9,416	21.6	13,148	26.4
BP	3,084	6.7	1,924	4.4	2,576	5.2
로알더치셀	5,708	12.3	3,105	7.2	5,030	10.1
7社 합계	15,208	32.8	14,445	33.2	20,754	41.7
자유세계 합계	46,320	100.0	43,555	100.0	49,765	100.0

〈資料〉各社 Annual Report

BP 통계, 1989년 7월

* 1 자산산유량과 특별공급계약으로부터의 입

수량 합계

* 2 타사와의 위탁정제계약량을 포함

〈표-2〉 메이저의 생산·판매동향 (1989)

	원유생산량	정제량	직접판매량	원유자급률
엑슨	1.9	3.0	3.4	63
로알더치셀 (미·和蘭)	1.8	3.1	4.1	58
BP (英)	1.6	1.7	1.6	94
텍사코 (美)	1.0	1.9	2.4	53

셰브론(美)	1.0	1.9	2.0	53
모빌(美)	0.7	1.6	2.3	44

(註) 단위는 100 만b/d, 자급률은 %

같은 유럽의 메이저로서 중동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로얄더치셀은 대이라크 제재에 참가한 오만을 보호하는 형태로 오만유전의 증산에 힘쓰는 한편 북해 및 알라스카와 아시아 등의 유전개발에 적극투자하여, 걸프만으로부터 점차 철수하고 있다.

한편 엑슨, 모빌, 셰브론, 텍사코등 美메이저의 움직임은 이번 걸프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대 산유회사인 사우디 아랍코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들 메이저들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 하류부문(정제·판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온건파 산유국과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제타도를 부르짖는 이라크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및 오만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美軍주둔과 美메이저와의 관계 긴밀화에 나선 것은, 걸프사태를契機로 사우디와 美메이저 쌍방이 새로운 관계구축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걸프사태는 과거 두차례에 걸친 메이저와 OPEC과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중동위기와 전혀 양상이 다르며 거기에는 美메이저의 복권에 거는 강한 기대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독자의 안보론에 의거한 장기전략을 엿볼 수가 있다.

〈表-3〉 메이저와의 經營狀況比較 (1989) (단위: 억엔)

	매 상 고	당 기 이 익	매 상 고 이 익 률
엑슨	131,339	4,844	3.68
모빌	76,496	2,496	3.26
셰브론	44,044	346	0.79
텍사코	44,734	3,330	7.44
美系四社計	(296,613)	(11,016)	(3.71)
로얄더치셀	146,407	8,934	6.10
BP	84,488	4,822	5.71
메이저計	(527,508)	(24,772)	(4.70)
日本石油社計	135,629	1,006	0.74

(註) 당기이익은 세공제후, 이익률 = %

〈자료〉 일본석유연맹

3. 美 國

메이저도 표면적으로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나 수면하에서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확실히 메이저각사는 판매부문에서 원유 코스트의 전가가 지연되어 전체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최대 메이저 엑슨은 「개발투자는 3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으며 3개월간 원유가 급등했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앞당기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엑슨은 최근 자사주 647만 4,000 주를 재매입하여 자금의 여유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다.

메이저 각사는 美國 알라스카 및 멕시코 등의 해양지역과 北海 등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엑슨은 탐사부문에 올해에 50 億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인데 금후 4년간은 10~20%의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셰브론은 메이저로서 최초로 蘇聯 카자프공화

국의 텍시즈지역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1991년중에 교섭을 마무리해서 구체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메이저의 투자자금의 흐름이 해외에서 美國內로 바뀌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해외의 유전개발은 탐사리스크가 크지만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美國內의 探査에 비해 개발코스트가 50%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油價가 계속 25달러를 초과하면 광구 狀況을 거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美國內의 유전개발은 투자효율상 매력은 충분하다.

예컨대 로얄더치셀의 美國法人인 셀오일은 금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8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대형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약 1,000m의 심해를 굴착하는 유전개발로 1993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멕시코灣의 심해굴착이 採算이 맞으면 美國內의 석유투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이저의 美國回歸를 불안시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내의 探査는 소규모 생산량으로 끝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메이저의 관심은 적고 獨立系石油會社가 주역이었다. 그러나 메이저가 美國內투자를 증가하면 종전의 질서가 붕괴되고 투자경쟁이 개시될 우려가 있다.

美國政府는 에너지정책으로서 자국자원의 보존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은 석유업계에 대해 국내증산을 2%정도로 억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수입원유가 미국수요의 50%를 초과하여 美國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내의 투자의욕은 에너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정세가 되고 있다.

리그業界의 대기업 베이커 휴즈社의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인 작년 8월4일 966 基였던 리그數가 1 개월 후에는 1,039기로 늘어 전년동기(950基)에 비해 9% 증가하였다. 그 대부분이 메이저 6社에 의한 것이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신규유전 개발뿐만이 아니다. 세브론은 캘리포니아州 산타바바라 海洋에 20 億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개발한 10 만 b/d의 유전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상업생산개시 직전인 88年 알라스카에서의 原油유출사고에 의한 자연보호운동의 격화로 가동이 보류되었던 이 유전이 걸프전을 계기로 美國產 원유를 25 萬b/d 증가시키는 정책에 따라 생산을 허용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메이저의 하나인 걸프를 1984년에 133 億달러에 매수한 세브론은 이 유전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경영이 악화되어 1989년의 수익은 엑슨, 모빌, 텍사코, 로얄더치셀, BP 기타 메이저의 10분의 1 이하인 2 億 5,000만달러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세브론은 이라크의 덕을 보게 되었다는 지적도 수궁이 가게 된다.

지난 수년간 미국계 메이저는 산유국에 압도되어 왔다. 아랍코와도 대등한 자본제휴 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텍사코는 2년전 경영재건을 위해 미국동부와 멕시코灣 연안의 석유정제시설 및 판매망의 50%를 아랍코에 매각했다. 그러나 美國정부와의 2人 3 脚의 걸프灣 공세로 입장을 급격히 호전시키고 있다.

王家타도를 외치는 이라크를 겁내는 아랍에미리트 및 오만 등 여타 걸프灣 왕제국가도 내심은 어쨌든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美國정부나 메이저의 영향력 강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의 걸프 위기는 메이저와 OPEC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과거의 중동위기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이라크의 힘을 꺾어서 메이저와 사우디등 산유국이 결속하여 원유생산의 신질서를 모색한다고하는 美系메이저 복권의 구도가 깔려 있다.

美系메이저들은 올해의 투자계획을 1990년에 비해 증액하였다.

텍사코는 투자액을 지난해의 29 억달러에서 31 억달러로 늘렸다. 엑슨, 셰브론도 확대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텍사코는 석유개발 및 생산 부문에 전체의 3분의 2를 투자하는 등 各社들은 상류부문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있다.

美國의 경기둔화로 대기업중에는 설비투자를 축소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으나 석유업계는 건실한 투자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텍사코의 1989년 실적은 23 억달러 1990년 계획은 전년비 26% 증가했고 1991년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예멘정부는 셰브론에 同國中部의 샤푸와 분지에서 석유개발권을 부여하였다. 이분지는 예멘에서도 유수한 원유 매장지대로 알려지고 있어 美國, 日本,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석유개발회사가 광구획득을 희망해 왔다.

걸프전쟁 발생후 세계적으로 유전의 신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원량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예멘에서는 개발이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샤푸와 분지에는 4광구가 설정되어 있는데 셰브론은 약 3,000km²의 1광구를 획득하였다. 지질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보여 현재 25 만 b/d정도의 예멘 산유량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예멘은 홍해와 더불어 인도양에도 면하고 있어서 해외로부터 원유를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걸프전쟁에 의해 걸프灣의 잠재적 위험성이 다시 인식됨으로써 예멘에서의 석유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社는 1990년 2月 시점에는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美國內에 소유하고 있는 석유 생산능력의 약11%에 상당하는 약1,000개소의 소규모유전을 감축하였다.

4. 유 럽

유럽의 「미니 메이저(Mini Majors)」는 1980년대 저유가시대에 획득한 대규모매장량에 대한 탐사 및 생산투자를 도처에서 급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상하류일관경영기업으로 변신하여 1990년대의 투자기회를 이용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되었다.

상류부문획득에 의해 프랑스의 ELF 및 Total, 이탈리아의 AGIP, 벨기에의 Petrofina, 그리고 스페인 Repsol이 생산 증가를 달성하여 과거 2년간의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5%, 증가량은 합계 약 160만b/d에 달했다. 지분원유 생산분은 현재 이들 회사를 합친 정제원유소요량의 약 4%를 차지, 대부분의 국제메이저가 향유하고 있는 평균 50~75%보다 크게 뒤떨어지지만 커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파리에 본사를 둔 石油콘설턴트會社 Enerfrance 社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걸프전쟁은 유럽의 정유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착수된 정유업의 구조개편은 1990년말에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유럽의 정유회사는 그동안 기존설비의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AGIP, Elf, BP, Texaco, 등 각사는 1984년이래 정제능력을 25%이상 축소하고 옛소, 셀, 모빌, 토탈등 각사는 15~20% 감축했으며 Repsol, Fine, Stat-

oil등 각사는 과거 6년간 근소한 능력감소나 증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유럽의 정제능력은 1988년에 6億 9,010 만톤/년(1,380 만b/d)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6億 8,210 만톤/년(1,364 만b/d)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능력감축은 구조개편으로 어느 정유공장도 감축은 했어도 폐쇄한 곳은 없다는 것이다.

텍사코와 BP는 유럽에서 석유정제의 합작사업에 착수하였다. 兩社는 공동출자로 정유회사를 건립, 각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보유하고 있는 정제설비를 신규회사에 이관하였다. 기능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쌍방의 설비를 상호이용함으로써 생산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등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였다. 歐美 메이저들은 투자중복과 설비과잉을 회피하기 위해 제휴를 하였다.

합작사업의 대상이 되는것은 텍사코의 베르니스정유공장과 BP의 유러포트정유공장으로, 각기 정제능력이나 합작사업의 규모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석유업계에 의하면 정제능력은 어느쪽도 수만b/d 정도로 추정된다.

합작사업에 이관하는 설비중 BP분은 석유제품중의 연료유를 경질화하는 분해장치를 갖고 있으나,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정제에 필요한 장치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텍사코가 보유한 설비는 분해장치를 갖지않고 있어서 상호 활용하면 거의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도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다.

美國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석유제품의 수요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비롯하여 고품질의 경질화로 점차 바뀌고 있다. 메이저 각사들도 이에 대응하여 경질화를 위해 기존

설비를 대상으로 개조, 갱신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갱신투자는 능력확대를 수반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일부에는 설비과잉에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텍사코, BP는 모두 설비과잉을 억제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는등 메이저의 앞날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엿볼수 있다.

또한 美國의 메이저와 유럽의 석유회사는 일체가 되어 브뤼셀에 로비단체인 유럽石油協會를 설립하였다. 세계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이나 에너지냐」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서 석유업계로서도 1992년의 EC의 시장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협회는 주로 EC위원회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협회는 엑슨, 모빌, 텍사코, 셸, BP등 메이저와 프랑스의 Elf, 벨기에의 Petrofina등 유럽의 석유회사, 그리고 쿠웨이트석유등 EC역외 석유회사의 유럽법인등 3者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기업은 31개사로 유럽석유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협회는 1992년의 EC 시장통합을 앞두고 석유업계의 이해조정을 하게되며 특히 세제, 제품의 기준인증, 환경등의 EC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세제에서는 이미 회원국의 간접세조정의 일환으로서 각국이 상이한 휘발유세의 통합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휘발유가격에도 영향을 줄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 강화가 확정되었으며, 네덜란드 등에서는 환경대책의 재원으로서 휘발유세의 증액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정제설비를 보유하는 석유회사가 일체가 되어 EC통합이나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고

려하여 업계의 이익을 도모해가기로 되어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현재 約 3 만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約 1 만개나 감소하였다. 이탈리아 유통업계는 채산악화로 인해 메이저들이 잇달아 철수하고 있으며, 현재 셀만이 대규모 사업확대를 꾀하고 있다. 셀의 확대노선의 배경은 이탈리아가 구미제국중에서 석유제품가격이 아직 경직되어 있지만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어 1년 이내에 영업이익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탈리아시장에 1990년3월20일 쿠웨이트석유(KPC)가 모빌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 매수한 시설은 ① 나폴리의 10 만b/d 능력의 정유공장 ② 이 공장에 부대하는 방향족설비 ③ 주유소 2,000개 ④ 기타 연료사업으로 매입액은 약 3 억달러이다. 이번 매입으로 소매시장의 세어는 10.5% 비소매시장에서는 11%로 확대하였다.

KPC의 유럽에서의 제품시장세어는 덴마크에서 20%, 스웨덴 12%, 벨기에 7%, 네덜란드 4.5%, 英國 2.5%이다.

모빌의 철수이유는 향후 이탈리아에서의 경쟁력에 자신이 없기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P는 1990년에 본사기능의 효율화계획에 따라 정보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본사종업원 1,150명을 감축했다.

BP의 R.Horton회장은 최근 방일시 경영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BP가 우위에 있는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고, 그렇지않은 분야에 주력하지 않음으로

써 핵심사업에서 최고의 이익을 올린다.

1990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이러한 경영이야말로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글러벌化 시대에는 메이저라 하더라도 상대국가와 Partner Ship을 이룩, 기업의 경쟁상 우위성과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이다.

지구환경대책에 주력하여 석유산업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5. 소 련

1990년8월 하순 蘇聯에너지當局은 무르만스크 30km 해역에서 수 100 억배럴의 원유매장이 추정되는 대해저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자금조달의 전망이 확실해지면 즉시 시추에 착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등 신규유전개발에 대한 큰 의욕을 보였다.

이를 전후해서 美國의 상무장관을 단장으로하는 경제사절단을 초청, 에너지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 결과 참여한 텍사코와는 바렌츠海, 세브론과는 카스피海에서의 석유개발의 기술 및 경제적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유망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즉시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BP가 제출했던 蘇聯진출신청을 인가, 메이저에게 최초로 모스크바에서의 휘발유 소매사업의 허가를 부여하였고, 그 대신 시베리아의 원유 및 天然가스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 조만간 공동자원개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고유가의 지속은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가속시킨다. 외화수입의 확대에 탄력이 붙으면 페레스트로이카를 궤도에 올릴수 있을지도 모른다. 종전에 지원해왔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자국의 에너지정책 우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텍사코, 셰브론, BP등의 歐美메이저를 끌어들이는 신규유전개발계획을 잇달아 궤도에 올림과 동시에 91년 4월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일에 맞추어 日本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收入의 확대를 배경으로 루블화를 hard currency (交換可能한 국제통화)로 변경시켜 가는등 에너지개발의 소련시나리오가 밝혀지고 있다.

BP 및 노르웨이 국영석유공사 Statoil사는 소련정부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연안의 카스피海에서 원유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3개국 공동으로 대형해저유전 굴착기지를 건설, 약 10 만b/d 규모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BP 및 Statoil은 蘇聯에너지당국과 조만간 개발계획을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카피스海의 유전개발에 서방측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계획해역은 10 억배럴이상의 원유매장이 확인되고 있다.

심해굴착이 필요하므로, 북해유전에서 실적이 있는 상사가 전면적으로 기술협력을 하게된다. 투자액등 상세한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쿠유전을 상회하는 대규모유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것 같다. 관계자에 의하면, 소련측은 90년대중에 본격적인 생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BP 및 Statoil은 걸프위기발발후인 지난해 8월하순, 자원조사에서 개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휴를 결정하였다. 신규 유전개발을 모색하는 소련에 접근 카스피海에서의 유전개발 교섭을 추진하여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맺는말

세계 석유업계에서는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엔 아시아, 太平洋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각국정부가 원유的高가격 및 공급중단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악영향때문에 자유화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日本만은 종전대로 자유화정책을 견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방침이 흔들리는 경향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日本에서는 등유가 가정용난방의 중심인데 석유회사는 이번 걸프사태가 발발하기 전부터 타제품의 손실분을 휘발유의 이익만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산유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석유업계에의 직접 투자는 한정되어 있다. 통산성으로서는 석유업계의 경쟁력강화에 직결될 것으로 확신되는 투자만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한 자유화이후에도 규제대상으로는 제품수출, 해외로부터의 참여, 비축 및 소매판로가 있다.

日本の석유시장에는 기존 메이저 이외에 BP와, 산유국에서는 사우디, 아부다비 및 쿠웨이트등이 진출의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石油메이저 자체의 체질과 전략변화에 금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초 아랍각국의 석유국영화정책으로 중동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던 메이저들은 저유가 및 판매경쟁의 격화등 出口가 보이지 않는 터널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인 회생책을 강구해 왔는데 이때 마침내 걸프전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

〈순간석유정책〉